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동회로 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회 활동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부장회의가 오후 1시에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세례교육이 오후 1시 사랑방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입교교육은
다음 주일(17일) 오후 1시 사랑방 사무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4월 수요집회는 이성운 전도사가 요엘서와 요나서를 강의합니
다.

이번 주부터 새교우 심방을 시작합니다. 새교우들은 심방전
도사님과 일정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용산지방 여선교회 계삭회가 12일(화) 오전 10시에 한
남동교회에서 열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사순절 달력에 따라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식 당 봉 사 : 이순정 오복순 오자영 박혜경b김수진b강성식 유순봉 박영희
4/17,24식당봉사 : 김금순 강순배 박영신 이소혜 김진경 장재영 최숙화
설 거 지 봉 사 : 안경아 이성경 조지연 박시내 최은미
다음 주 설거지 : 이국노 김민화 박소진 주경진 이윤정
새 교 우 : 변혜정(7여) 홍성식(4남) 이유리(5여)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에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 육 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23.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다함께
- ♣ 공동기도 다함께

우리에게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허락하시고 동행이 되어주신 주님, 순례 길 중반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주십시오. 주님께서서는 점점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 계시지만 여전히 이기적인 욕심에 붙들려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라도 부질없는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좇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함께 살아감의 행복보다는 개인의 성공만 추구하며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경쟁의 벼랑 끝으로 내몰려 피지도 못하고 진 짧은 꽃들을 주님께서 받아 주십시오. 삶의 속도를 줄이고 우리가 가야할 곳으로 바르게 가고 있나 잘 살피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 위로의 말씀 사41:10 인도자
- ♣ 교 독 문 128. 사순절(5) 다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 대표기도 조병무 장로
- 응 답 송 찬양대
- 찬 양 298(통35). 속죄하신 구세주를 다함께
- ♣ 성경봉독 I. 요6:1-15 이정은 선생
 II. 고후6:1-10 임주빈 집사
 봉독자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 중 :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 찬 양 찬양대
- 말 씀 I. 이 사람들을 먹이라 김재흥 목사
 II. 참 낮선 사람들 김기석 목사
- 거듭기도 다함께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재흥 초희영 김성한 조영순 한상익 정영선 김순복 권영웅 김일랑
 이은옥 김종락 박영신 김훈동 유경순 문복순 최현선 박시내 박창운
 허정윤 배근수 김금순 백묘현 서수진 안정숙 안종일 정현주 이재문
 장대호 한숙경 최종훈 김금하 정현숙 한대훈 김지호 전혜리 권채영
 이광용 형인순 무명

월정헌금:

김명순 이교영 김문주 김영순 김종문 지명주 김종철 고영애 문금석
 박상규 이봉배 이봉옥 이정은 이현순 전영자 정두리 조순덕 김주연
 이지훈 박윤숙 이종현 홍복선 무명

감사헌금:

김지호 전혜리 이에서 이해동 최선미 방 준 김순복 이자애 이우엘
 문복순 조병무 송양진 허준호 최종훈 김금하 무명4

녹색꿈헌금:

김기석 김희우 장원호 박성희 류준모 심호선 문홍일
 이미혜 김준우 김미순

생일감사헌금:

최숙화 안혜지 김정일

	장 해 속	백 해 속	조 순 덕	백 해 속
	노 순 옥	정 경 레	배 부 레	정 경 레
	임 정 자	최 경 미	이 재 문	최 경 미
	문 영 해	이 명 희	박 정 속	박 경 선
	안 정 속	진 정 속	김 해 권	이 봉 배
	박 흥 재	곽 권 희	김 경 수	조 영 순
	박 호 선	허 정 윤	임 미 심	홍 복 선
	이 순 정	김 금 순	이 순 정	김 금 순
	이 형 속	권 미 속	구 성 실	임 영 선
	안 흥 속	오 현 정	박 찬 정	오 현 정
	정 영 선	이 현 속	이 현 속	송 양 진
	이 영 란	박 미 영	이 영 란	유 해 경
	박 해 경	조 향 미	심 상 속	이 기 분
	김 재 흥	오 자 영	교 회	교 회
	김 기 석	이 건 식	이 건 식	교 회

나무처럼 살기

이경숙

- 욕심부리지 않기
- 화내지 않기
- 혼자 가슴으로 울기
- 풀들에게 새들에게
- 칭찬해 주기
- 안아 주기
- 성난 바람에게
- 가만가만 속삭이고
- 이야기 들어주기
- 구름에게 기차에게
- 손 흔들기
- 하늘 자주 보기
- 손뼉치고 웃기
- 크게 감사하기
- 미워하지 않기
- 혼자 우물처럼 깊이 생각하기
- 눈감고 조용히 기도하기

찬 양 461(통519).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다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이기적인 욕심과 그릇된 기준에 이끌려 살지 마십시오. 중심을 바로 잡고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하나님 일꾼으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사된 욕심과 그릇된 기준을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이 닥쳐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축 복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요엘서 · 요나서 강의 / 이성운 전도사 기도 : 김윤정 집사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운선
김수진	김아영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공동기도	권하영 학생
	김기석 목사	한완식 장로	오자영 집사

4월	영접위원	조병무 김훈동 박석희 유경순 조항미 오자영
	헌금위원	한상익 장혜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봄 편지

고운 말 이롭기대회에서 입상한 어느 미용실 이름이 ‘머리에 얹은 봄’이었다는 기사를 보고 참 새롭고도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의 봄은 만들어야 온다는 말을 다시 기억하면서 나의 마음에도 봄을 얹어야지 생각하며 이 글을 씁니다.

봄이 일어서니 / 내 마음도 기쁘게 일어서야지 / 나도 어서 희망이 되어야지 / 누군가에게 다가가 봄이 되려면 / 내가 먼저 봄이 되어야지 / 그렇구나 그렇구나 / 마음에 흐르는 시냇물 소리 - 이해인, <봄 일기-입춘에> 전문

어느 날 저는 이렇게 노래해 보았습니다. 봄은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다가가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라고 재촉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되도록 밝은 마음과 표정을 지니려고 애씁니다. 봄이 왔다고 더 열심히 노래하는 창밖의 새소리도 ‘사소한 일에 스며 있는 기쁨을 놓치지 말라’, ‘어서 희망을 노래하라’고 일러 줍니다. 하루의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쨍그리지 않고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도 기쁨과 희망을 건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 꽃은 땅속의 학교에 다니지요 / 문을 닫고 수업을 받는 거지요”로 시작되는 타고르의 <꽃의 학교>라는 시를 읽으며 봄의 정원을 산책합니다. 제비꽃, 민들레, 봄까치꽃, 천리향 등등 여러 종류의 꽃들이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하는 봄 뜰에 서면 봄은 우리에게 좀 더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라고 일러줍니다. 봄에는 너도나도 약속이나 한 듯이 꽃구경을 하지만 우리 마음을 꽃마음으로 만들고 우리의 자리를 꽃자리로 만들 수 있어야만 우리의 봄은 향기롭고, 꽃놀이도 그만큼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꽃에게로 다가가면 / 부드러움에 찢려 / 빠거나 부은 마음 / 금세 / 환해지고 선해지니 / 봄엔 / 아무 꽃침이라도 맞고 볼 일” 이라고 말하는 함민복 시인의 <봄꽃>이란 시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혹시 누구하고 살짝 빠친 일이나

미워서 부은 일이 있다면 시인의 표현대로 어디 가서 부드럽고 아름다운 ‘꽃침’을 맞고 환하고 선한 마음을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나라에서 책임을 맡은 분들은 일부러라도 짬을 내어 ‘꽃침’을 많이 맞아야만 주변에 더 환하고 선한 봄을 퍼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다운 3월아, 어서 들어오렴. 빨리 달려오느라 얼마나 숨이 차겠니? 나와 함께 2층으로 올라가자. 난 네게 할 이야기가 많단다”하고 노래하는 에밀리 디킨슨의 시를 읽으며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밖에 나가서 꽃구경을 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이 시인처럼 혼자만의 방에 봄을 데리고 들어가 고요히 내면의 이야기를 나누며 명상에 잠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누가 봄이 좋다고 하면 봄이 아름답긴 하지만 온천지에 꽃이 너무 많이 피어 정신없고 왠지 마음을 들뜨게 하는 것 같다고, 낙엽과 함께 쓸쓸하더라도 차분한 느낌이 드는 가을이 더 좋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암환자가 되어서일까 지금은 봄이 너무도 황홀한 선물로 다가오고 순간순간이 아름다워서 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떠나는 계절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나도 봄에 떠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리고 보니 곧 1주기가 다가오는 저의 벗 화가 김점선도, 멋진 에세이스트 장영희도 모두 봄에 먼 길을 떠났다는 기억이 새롭네요.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고 가을은 쓸쓸하니 그래도 생명의 기운 가득한 봄에 떠나면 남은 이들이 좀 덜 슬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해보게 됩니다.

“봄과 같은 사람이란 아마도 늘 희망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따뜻한 사람, 친절할 사람, 명랑한 사람, 온유한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일 게다 자기의 처지를 불평하기 전에 우선 그 안에서 해야 할 바를 최선의 성실로 수행하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새롭게 하며 나아가는 사람이다.”

저의 어느 산문집에 있는 <봄과 같은 사람>을 누가 한번 인용한 후로 인터넷에도 많이 떠다니는 이 글을 저도 다시 한 번 읽어보며 봄과 같은 사람이 되리라 다짐해 봅니다.

봄과 같이 따뜻한 맘씨, 봄과 같이 부드러운 말씨, 봄과 같이 밝은 표정, 봄과 같이 환한 웃음, 봄과 같이 포근한 기도를 바치며 함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어떤 이유든지 그동안 말 안 하고 지내는 이들과의 냉담한 겨울이 있었다면 그 사이에도 화해의 꽃바람을 들여놓아 관계의 봄을 회복하기

로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새 봄길을 걸어가는 꽃과 같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 이해인,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이』 중에서